

QR코드 스캔하면 찰나삼세 끝... 인증 절차는 번거로워

체험기

CBDC로 결제해보니

은행 앱 통해 전자지갑 개설 연계된 계좌, 토큰으로 전환 이용위해 3번의 인증 거쳐야 한은, 테스트 종료 후 개선

찰나삼세(刹那三世)라는 말이 있다. 찰나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크사나(ksana)에서 온 말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1초의 71분의 1일, 즉 0.013초로, 찰나삼세는 현재의 찰나와 0.013초 전의 과거, 0.013초 후의 미래를 더한 시간이다.

“결제 되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제하는 시간은 찰나삼세면 충분했다. ‘결제해 드릴까요’와 ‘결제 되었습니다’를 동시에 들었으니, 순수 결제 시간은 그만큼 짧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 QR코드 하나면 결제 ‘뚝딱’

지난 2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보기 위해 은행 앱(App) 이벤트란에서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신청했다.

우리가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듯 디지털 화폐도 넣고 다닐 전자지갑이 필요하다.

은행 앱 내 전자지갑을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찍고 계좌번호 인증을 거쳤다. 전자지갑은 은행 앱과 별개로 또 다른 비밀번호를 필요로 한다. 결제 시 사용할 비밀번호도 새로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만든 뒤 가장 먼저 해야



(왼쪽부터)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결제하기 위해 전자지갑에서 QR코드를 생성한 모습. 오프라인에서 키오스크 결제시, 결제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할 일은 예금통장에 있는 예금을 토큰으로 바꾸는 일이다. 전환 입력을 누르면 연계된 계좌번호와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뜬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 가장 많은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들렀다. 물건을 고르고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은행 앱 인증과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열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QR 보여주기과 QR 스캔하기 화면이 나온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주로 QR·바코드를 보여주면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QR보여주기를 택했다. 바우처 결제 여부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QR코드가 생성됐다. 결제는 카카오페이, 삼성·애플 페이 등과 같이 QR코드를 보여주면 매장직원이 스캐너로 찍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캐너를 대니 결제가 바로 됐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결제 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날 기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키오스크로 책을 구매했다. 책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은 뒤 결제 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했다.

은행 앱을 열고 지문으로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후 편의점 결제와 같이 결제하기→QR보여주기→바우처 혜택 적용 여부 선택→비밀번호 입력→QR코드 생성→키오스크 스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했다.

◆ 3번의 인증절차, 번거로워

아쉬운 점은 전자지갑을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인증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이었다. 은행 앱을 열기 위해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 인증,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또다시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했다. 평상시 지문 한번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다른 00페이보다 절차가 3배 이상 길다.

시험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도 제한적이었다. 약 3개월 간의 시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주로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확인이 어려워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결제가 개인의 자금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세금 추징 등에 민감한 자본가들은 어디에, 얼마만큼까지 실거래 테스트나,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등의 기록될 여지가 있는 CBDC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CBDC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CBDC로 지급하면 소비자는 종이상품권,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식료품, 문화 등의 목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그 외의 결제를 제한해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말 테스트를 종료한 뒤 결과를 모아 서비스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개인 간 송금과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를 마련해 추가 사례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진단부터 생활비까지 ‘다시 일상으로’ 암보험

삼성화재는 3일 암 진단비는 물론 일상복귀 생활지원금을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암보험 ‘다시 일상으로’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발병 초기의 수술비용을 보전하는 ‘암 진단비’ 최대 500만원과 더불어 암 치료 후 회복 및 일상복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암든생생활지원금’은 암 진단 6개월 후부터 24개월간 매월 200만원, 총 48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입나이는 19세부터 최대 65세다.

보험기간은 20년 갱신형이다. 최초 가입 후 최대 20년간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캐롯손해보험 삼성물산 ‘홈닉’ 통해 주택종합보험 간편가입

캐롯손해보험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사용자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홈닉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앱이다.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인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홈닉 앱을 이용하는 제휴 단지 입주자는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손보 부문 5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1위

DB손해보험은 ‘The 2025 NFY K-NBA’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KOREA-National Brand Awards) 손해보험 부문에서 5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은 세계적인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이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브랜드 인지도와 대표성, 고객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를 측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은 “5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손해보험 부문 1위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저축은행 2년 연속 적자... 금리 빙하기 예고

전국 79곳 합산 손실실 3974억 건전성 확보 위해 금리인하 전망 예금 평균금리 연 2%대 초읽기

저축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건전성 확보와 이자 비용 감축 등 긴축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 6.5%까지 상승했던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연 2%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합산 손실실은 3974억원 규모다. 지난 2023년(손실액 5559억원)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흑자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과 기준

금리 상승 여파에 대출수요를 찾지 못하면서 경영지표가 악화했다.

올해도 저축은행은 긴축경영에 나선다. 손실 예방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우선 PF 경공매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부실채권과 사업장 처분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쌓은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3조7000억원이다. 지난 2023년부터 2년동안 7조5000억원을 적립했다.

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자금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23%로 법정기준(100%) 대비 13.23%포인트(p) 초과

했다.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전성을 갖추면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진정이 요구된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12.81%다. 전년 동기(8.02%) 대비 4.79%p 상승했다. 저축은행이 기업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연간 0.48%p 하락한 4.53%로 집계됐다.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이자 비용 줄이기에 성공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이자 비용은 4조1372억원이다. 연간 1조2136억원 감축했다. 지난 2023년 시

장금리 상승 여파에 저축은행도 고금리수신 기조를 고수했다. 당시 연간이자 비용이 2조4331억원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 가능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저축은행이 연달아 수신금리를 낮추면서 예금 평균금리 연 2%대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다. 연간 0.72%p 하락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인 지난 2022년 상반기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년 3월 전국 저축은행 예금 평균금리는 연 2.47%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서두르라는 조언이다. 지방·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연 3% 중반대 정기예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분양가 치솟은 3기 신도시 ‘흥행 가도’

시세차익 이점에 청약열기 지속 인천계양, 최대 1.8억 차익 예상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이 사천정약 당시보다 최대 1억원 가까이 오르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졌지만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이 유지되며 청약 열기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천정약에서 분양까지 약 3년 동안 인천계양(A2·A3)은 추정가 대비 18%, 고양창릉

(A4·S5·S6)은 15%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최대 인상 폭은 1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인천계양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42.7%(341명), 고양창릉은 26.6%(373명)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분양가 흥행은 이어졌다. 인천계양 A2·A3블록은 일반공급 기준 대부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일부 주택형은 세 자릿수에 육박했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억8411만원이다.

인근 시세는 ▲계양하늘채파크포레(6억원) ▲계양효성해링턴플레이스(6억3500만원) ▲힐스테이트자이계양(7억6375만원) 수준으로 최대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구조다.

/전지원 기자 jiw13@